

# 시민 편의 증진 위한 요구사항 챙긴다

우범기 전주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통해 248건 청취… 검토 통해 주민 요구 해결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 한 해 진행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응답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248건의 주민 요구사항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주민 요구사항 중 추진이 불가한 사항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완료 시점까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들을 제외한 125건 중 연내 49건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요구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편성 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는 △자생단체 행사 시 도시공원 사용 허가(평화2동) △교차로 그늘막 설치(진북동) △가로수, 노후도로 정비 등(공동) 37건이다.

이 가운데 시는 평화2동에서 요구한 자생단체 행사 시 도시공원 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도시공원 및



우범기 전주시장이 올 한 해 진행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응답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 허가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자생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요구를 해결했다.

또한 우 시장은 진북동 주민들이 제기한 안덕원로·기린대로 일부 구간 그늘막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설치를 지시함으로써 해당 구간에 11개의 그늘막이 설치되기도 했

다. 여러 동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가로수 및 노후도로(차도, 인도)에 대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주민 요구사항 중 오랜 시간 진행된 덕진동 농촌마을(대지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중화산2동 우수관 맨홀덮개 교체 등 12건을

추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내년 완료율 목표로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중양동, 삼천2동) △치안취약지구 CCTV 설치 사업(인후초, 유일여고 인근)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결하는 데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현재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35개 동에서 펼쳐진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14일 삼천3동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으며, 우 시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지속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완성·덕진구청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챙기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민원일 큰 민원 구분 없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대만 투어로 전주 문화 알린다

전주시 홍보대사 ‘차오름’,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선정

전주시 홍보대사인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이 대만 투어를 통해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전주시는 전주를 주 무대로 활동 중인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이하 차오름)이 (재)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한 ‘2025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대만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차오름은 지난 9월 전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전주시의 주요 행사·축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전주의 문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차오름은 이번 대만 투어에서 타이베이와 신베이, 협춘 지역에서 단독 및 협력 공연을 진행하며 전주 주가 지난 전통·예술·창작 문화의 매력을 대만 관객에게 직접 소개한다.

특히 차오름은 이번 투어를 통해 대만의 여러 아티스트와 교류를



강화하며 향후 아시아권 창작 음악 네트워크를 넓혀나갈 예정으로, 국제 창작음악 협력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차오름은 지난 2022년 대만 끝은 인디뮤직어워드(GMA) 아시아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부문에 지명된 인연으로 지난 2024년에도 첫 번째 대만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연말 회계 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

12월 31일까지 156억원 정리 목표

전주시가 연말을 앞두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세 114억 원과 세외수입 42억 원 등 총 156억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연말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3회 이상·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로 및 주요 생활권 중심으로 영치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즉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보유 재산을 정밀하게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부동산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부

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도 가동된다. 관련 부서에서는 전화 안내와 납부 독려 활동 등을 통해 밀린 세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힘을 기울인다.

시는 연말 특별징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작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 ‘1593 전주별시’ 과거시험 재현행사 성료

1593년(선조26년) 임진왜란 당시 임금인 선조가 세자(광해군)를 전주로 보내 실시했던 과거시험이 전주한옥마을에서 재현됐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전주전통문화원 수원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제8회 ‘1593 전주별시’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전주별시’는 광해군이 임진왜란 중 전주에 머물며 국난에서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문과에서 9명과 무과에서 1000여 명을 뽑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날 재현행사는 △과거시험(국궁, 한글 글짓기·운문·산문, 한시) △국악 공연 △방방례(시상식) △급제자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문과에서 9명과 무과에서 1000여 명을 뽑은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청소년 지식재산 대회 열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하전, 이하 진흥원)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글로스터호텔 전주에서 전주고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전주시 청소년 IP(지식재산) 대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와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고육지원청이 주최한 가운데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IP(지식재산) 기반의 발명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 진흥원은 청소년들이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 상표 등 개인의 창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IP(지식재산)의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나만의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보자. 생각에서 발명으로! 지구를 살리는 발명왕’을 주제로 진행된 본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 27개 팀(80여 명) 참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식재산권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심사 결과, 총



1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전주시장상은 △온빛초등학교 드림팀(김승후, 국제호, 임서진) △평화중학교 브레인비트팀(주강운, 강승운, 김명준), △한국계인과학고등학교 지니어스 몬스터팀(서동수, 이동현)이 수상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고육지원청

교육장상에는 △양지초등학교 주도나 팀(양수호, 박주원, 김시원)과 △완산중학교 슬럼팀(원혜경, 이운술), △완산국제인과학고등학교 오경민팀(이강민, 오은호, 이경환)이 받았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은 △전주고대부설초등학교 초록빛상상연구소팀(김희란, 박라엘)과 △화산초등학교 Keystone팀(조수인, 이호은) △화산중학교 후드티팀(고준희, 맹민석, 전다인, 최서강), △해성중학교 예코마인드팀(김지후, 김민성, 한승준), △전주완산여자고등학교 김왕짱팀(강은지, 임소율, 최하은, 허효재)이 각각 차지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